



① (X) 참으면 계속 쌓여서 문제만 눈덩이처럼 커질 뿐야. 너도 사귀는 애도 마음이 편치 않지. 그런 관계는 만날 때마다 괴로움만 만땅이라구. 너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. 참지 말고 너의 불편한 마음을 전달해. 이런 상황에서 언젠가라는 건 아무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막의 신기루같은 거야.

② (X) 성폭력은 여자애, 남자애 구분 없이 다 겪을 수 있어. 성폭력은 자기보다 약해보이는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면서 자기 파워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거든.

③ (O) 처녀막? 원래 막혀 있다가 SEX할 때 파괴되는 거면 월경이나 질 분비물은 나올 수 없는 거잖아. 처음 SEX했을 때 피가 나오는 경우는 원래 막혀있던 막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게 아니고, 무서움이나 긴장감 갖고 무리하게 (성기)결합하려고 하니까 질 입구에 있는 약한 근육들이 상처 입어서 생기는 거야. 당근 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. 질주름: 질 입구를 감싸고 있는 근육조직.

④ (X) 술 마신다고 다 돌+아이가 되는 건 아니지. 또, 개가 술 마시고 누굴 보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게 다를걸? 자기보다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유독 그런단 말이지.

⑤ (X) SEX를 하든 하지 않든 헤어질 애들은 헤어지자고 해. SEX가 꼭 사랑 확신의 기준은 아닌 거지. 그니까 이걸 머릿속에 넣고 네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~ 너의 주인은 너라는 것도 잊지 말구~!

누구 '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(좋은 세상)'이 뭐냐면, 마을 사람의 즐거운 참여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풀뿌리단체야~

언제 어디서 **십대여성 거리상담활동 '틴모빌'**  
매주 목요일 오후7시~자정까지  
신림역 PODO물 1층 야외마당에서 10대를 만나고 있어.  
비울 땐 신림역 1,2번 출구 지하1층 역사 안에서 만나구.  
겨울철에는 격주로 해.

위치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서울여성플라자 4층  
NGO센터 돈옴터

카페 [cafe.naver.com/good7947](http://cafe.naver.com/good7947)  
메일 [good7947@gmail.com](mailto:good7947@gmail.com)

후원 우리은행 1006-001-334119  
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

전화 02-825-7947  
팩스 02-823-7947



이 사업은 아름다운가게가  
우리동네 희망등대에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.

동네안바퀴

'폭력 잘 가~ 마을'에서  
너도 나도 소통하기



주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 
Good Society Activists

친구네집 02-825-7947  
[cafe.naver.com/good7947](http://cafe.naver.com/good7947)

후원 아름다운가게

즐거운 데이트를 위한 O X 퀴즈

① 여친/남친이 자꾸 괴롭혀. 내가 조금만 참으면 언젠간 달라질 거야.

② 성폭력은 여자애한테나 해당되는 거야.

③ 처녀막이 아니라 질주름이야.

④ 술 마시고 돌+아이 되는 건 술 때문이지, 개가 나쁜 게 아냐.

⑤ 사귀는 애가 요즘 자꾸 SEX하자고 한다. 사랑하면 당연한 거라고.

내 고민 좀 들어봐

ID. 콩디

사귀지 1주이 됐어. 만나면 내가 먼저 스킨십 넘 하고 싶는데 싫다고 할까봐 고민돼.

거절하면 날 별로 안 사랑하나 싶은 것 같기도 하고. 스킨십은 원래 눈치껏 하는 거니까 물어보기도 좀 그래.

제속 개 먼저 하는 건 싫어. 나도 먼저하고 싶단 말야, 끌려가는 건 싫으니까.

ID. 죽은 세상의 언니

ㅇㅋ 얘기 잘 들어. 스킨십을 물어보지 않고 '눈치껏' 한다는 말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야. 차라리 둘이 이렇게 정하는 건 어때? 상대방에게 물어봤는데 스킨십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, 하고 싶지 않은 날이거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표시라고. 그리고 하기 싫을 땐 확실하게 No라 하고 내가 No라고 할 땐 진짜 No인거라고.

머리가 복잡하네, 요즘...

ID. 누에베오

나 어떡해요, 언니? 사귀는 애가 딴 애들이랑 놀지 말래.

근데 개하고만 놀다가 깨지면 나 아싸되잖아.

아싸가 뭐냐고? 아웃사이드(-□-). 딴 애들이랑 같이 놀자고 했더니 어제부터 내 폰 문자 되지고 자꾸 나 감시하는 거야. 그래놓고 이 문자 뭐냐고 그럼서 나 때리고. 잘못했으니까 때린 거래. 날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나.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아닌 듯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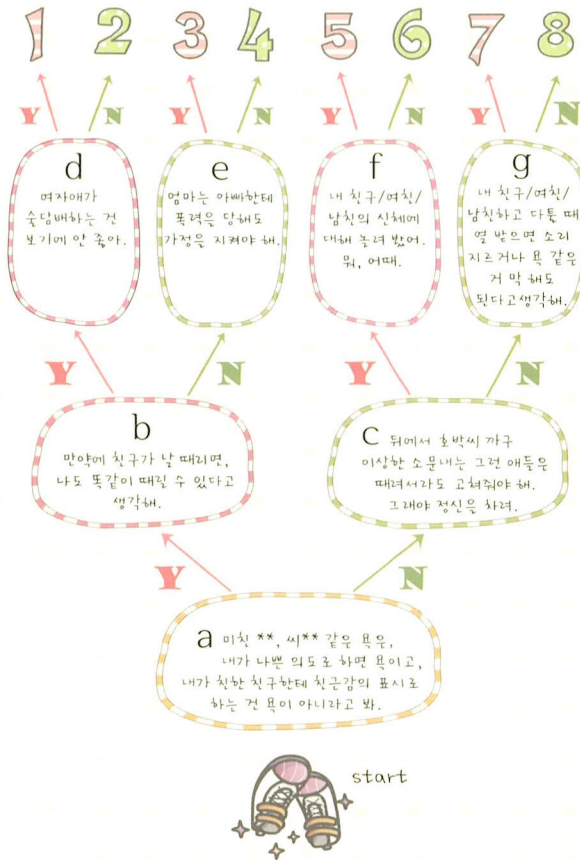
ID. 죽은 세상의 언니

널 가둬두려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.

개 버릇을 고쳐주고 싶으면 (데이트 폭력을 하는 가해자인 걸 알게 됐다면) 민을 만난 어른이나 전문가를 찾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. 또 때리려고 하거나 너한테 빌면서 설득하려고 할 땐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말구.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.

안 그럼 더욱더 심해지니까.

TEST



테스트 해설 = 편견 털기

1 타입 센.척. 좀 할 줄 아는 듯(-\_-) d에 YES 한건 여자라서야? 10대라서야? 술담배라서야? 어디에 너의 편견이 들어간 걸까!

2 타입 예에에에~ 위험수위 함수위(+ + +) b에 YES한걸 보니,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일들이 마음을 괴롭히겠고만~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지. 똑같이 하지 않고도 친구를 벌 줄 수 있는 법을 생각해 봐~

3 타입 앗! 잠.깐.만.~ 자신을 돌아봐(ㅇㅡㅇ)! e에 YES한걸 보니,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서 외톨타기 하고 있어! 가정폭력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.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건 엄마를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아.

4 타입 a에 YES 했다면, 호미~ 뇌와 몸이 따로따로~ 머리론 알겠는데 왠지 자꾸 폭력적인 때가 많겠어(=ㅅ=) 친구는 싫는데 그냥 참고 있는 것일 수 있구나. 또 주위에서 그걸 듣게 된 사람들은 네 입으로 폭력(=때린) 당한거져~

5 타입 f에 YES 했다면, 말과 행동하기 전 한번만 더 생각해봐~ 전에는 그랬지만 앞으로 안 그럼 좋겠음~ 왜냐? '나만 아니면 돼~' 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냐? 놀림받으면 기분 나쁘지? 그럼 딴 애들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어?

6 타입 c에 YES 한걸 보니, 잘 가다가 잠시 딴 길로 섰구만~! 안 때려도 벌줄 수 있어~ 같은 일을 겪은 애들이랑 친구들 있는 앞에서 개들 말이 얼마나 쓸데없는 지 알려줘. 누군가 그걸 믿고 신경쓰는 걸 아니까 놀리거나 뒤엎말하고 다니는 거거든.

7 타입 g에 YES 했다면, 평등+평화 실천 2%부족 되겠음! 내 친구/여친/남친하고 닮은 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 얘기할 때랑 소리 지르거나 욕하면서 싸울 때랑 끝난 뒤에 어느 쪽이 안 뽀죌고 금방 화해했어? ㅎㅎ

8 타입 올레! 테스트에 있는 편견이 없구나 + + +! 비폭력 활동가 해도 되겠는걸!~ 님 좀 찡인듯.